

## 부모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이 시 은<sup>†</sup>

이 재 창

홍익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유대와 대인애착 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생 33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Parker, Tupling, 그리고 Brown(1979)이 개발하고 Gamsa(1987)가 수정한 부모유대 질문지(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Cohen과 Hoberman(1983)의 대인관계지지 평가 질문지(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ISEL), 그리고 Collins와 Read(1990)의 성인애착 질문지(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부모유대, 지각된 사회적 지지, 그리고 대인애착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여학생 집단에서만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 돌봄과 대인애착의 하위요소(의존과 불안)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부모유대에서 대인애착에 이르게 되는 다양한 경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주요어 : 부모유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인애착

---

이시은은 홍익대학교 강사임, 이재창은 홍익대학교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이시은,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130-861)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53, 벽산아파트 102-404  
Tel : 011) 419-4222, E-mail : hiverai@hanmail.net

개인이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양적, 질적 측면은 개인의 독특한 정체감 형성 뿐 아니라 적응 및 건강한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 즉, 대인관계가 만족스러우면 한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대인관계가 불만스럽고 비효과적일 경우 성장, 발달은 저해되고 부적응으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이형득, 1997). 특히 친밀한 관계는 개인의 발달과 안정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자녀 관계, 친구 관계, 애인 혹은 결혼 관계 등은 발달상의 시기에 따라 개인에게 영향을 크게 주는 관계라 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발달단계상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자율적인 정체감을 형성하고 타인과 친밀감을 발달시켜 성숙한 대인관계의 바탕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제라 할 수 있다(권석만, 1995; Bowen, 1986; Carary et al., 1995; Erikson, 1968; Marcia, 1980). 때문에 대학생들의 대인애착은 개인의 적응 및 성장·발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애착 이론은 원래 어머니-유아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지금은 전 생애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애착 이론에서는 초기 양육자와의 안정된 애착 관계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는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며 정신건강의 필수적인 요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초기 양육자와의 안정된 애착관계와 전 생애에 걸친 대인애착간의 관련성은 Bowlby의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유아는 양육자와의 계속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고, 내적 작동 모델은 자기와 타인에 대해 이와 일치된 방식으로 지각하고 행동하도록 하

는 인지체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 때 발달된 작동 모델은 이후 성인의 대인애착으로 연결된다(Bowlby, 1982; Main et al., 1985). 결국 한 개인의 초기 양육자에 대한 정서적 유대에 따라 내적 작동 모델이 형성되고 이에 기초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애착 이론을 통해 초기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했던 Bowlby(1988)는 부모의 반응적이고 유용하며 민감한 반응은 유아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요소라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Parker 등(1979)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많은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을 개관하여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는 돌봄과 과보호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PBI (Parental Bonding Instrument)라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PBI는 초기 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16세 이전까지의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들은 PBI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유대감을 파악하거나 왜곡된 양육의 심리적·사회적 기능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초기 부모와의 유대는 청소년 및 성인의 공격성(Rey & Plapp, 1990), 자살 및 우울(Martin & Waite, 1994), 각종 정신질환(Parker, 1979a; Parker, 1979b), 사회적 관계망과 친밀한 관계(Parker et al., 1992), 사회적 지지(Flaherty & Richman, 1986)와 관련되며, 개인의 심리 사회적 문제는 대체로 부모의 낮은 돌봄과 높은 과보호와 관련됨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유대에 관한 연구들은 애착 이론을 토대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심리사회적 변인 혹은 심리사

회적 문제 변인간의 관련성을 밝혀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초기 부모와의 유대가 대인애착의 구성요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로(Ainsworth et al., 1978; Bowlby, 1958), Collins와 Read(1990)는 성인애착의 구성요소로써 의존, 친밀, 불안의 3가지 차원을 들며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제작, 타당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인애착의 형성 배경을 밝히고자 초기 부모와의 유대감이 현재 대인애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모의 역할이 대인애착의 하위 구성요소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었다. Bowlby는 어머니를 일차적인 애착 인물로 가정하였으나, 연구자들은 다른 애착인물, 특히 아버지의 중요성을 인정해 왔다(Liu, 2006). 특히,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Kerns & Stevens, 1996; Lui, 2006; Matsuoka et al. 2006). 어머니와의 애착 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한 단위(unit)로 기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와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를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Kerns & Stevens, 1996; Paterson et al., 1994). 이러한 연구들은 아버지가 자녀와 애착을 형성하는 양상이 어머니와

다를 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모델이 되어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초기 어머니와의 유대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유대가 대인애착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의 대인애착 형성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들의 사회관계망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지 자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욕구와 부합하여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다. 한 개인의 사회적 지지체계는 생의 초기에 부모, 형제 등의 가족 구성원들과 밀접한 관계로 시작하여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가족 구성원 이외의 중요한 타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점차 확대되고 다양해진다.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질적, 평가적, 소속감, 자존감의 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Cohen & Hoberman, 1983), 개인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고 생활사건의 적응성을 증진시키고 적응적인 방법으로 발달을 장려하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된다.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의 원형에 의해 지각의 양상과 정도가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대인관계의 원형은 특히 아동기의 부모와의 애착 정도와 양상에 의해 규정되어짐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Berdcheid, 1994; Fong & Markus, 1982). Sarason 등(1990)은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애착 이론과 관련하여 양육자와의 초기 관계에서 기원하는 수용의 감각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즉, 초기 양육자와의 유대를 기초로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이 개인의 지지에 대한

기대, 즉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지지를 이용할 수 있을 때 개인은 자신이 사랑받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게 된다(Sarason et al., 1983). 김주연(2001)은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이성 관계에서의 만족 수준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성 관계는 청소년과 성인의 애착관계 중 중요한 영역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이 애착과 관련됨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Mallinckrodt(1991)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이 높고 부모와의 유대가 잘 되어있는 내담자일수록 작업동맹 형성이 용이하다고 하였다. 상담관계는 다른 친밀한 대인유대와 중요한 특징들을 공유하며, 상담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동맹은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정서적 협력으로써(Derlega et al., 1991; Greenson, 1965),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애착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사회적 지지가 자기 개념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기대의 반영으로서, 특히 친밀한 사람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인 대인애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원래 초기 부모유대와 후속 관계들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던 Bowlby(1982, 1979)와 Ainsworth(1989)는 그들의 애착 이론에서 원칙적으로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가 후기 친밀한 관계에만 적용됨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많은 애착 연구들은 초기 애착과 후속 관계들 간의 관련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정서적 유대가 포함된 관계와 정서적 유대가 포

함되지 않은 관계를 구별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왔다(Belsky & Cassidy, 1994; Sroufe, 1988). 내담자는 흔히 상담자와 안정된 상담관계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상담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새로운 사회적 지지 세력과의 경험을 통해 교정적인 경험을 제공받는다. 하지만 한편으로 내담자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상담자와의 친밀한 관계도 처음에는 낯선 이와와 상호작용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역시 일반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 체계로써 초기 부모와의 유대와 후기 대인애착이라는 변인을 설정하고 사회성 체계로써 지각된 사회적 지지 변인을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기초로 부모 유대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대인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부모 유대와 대인애착 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부모유대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라는 기제를 통하여 대인애착과 연관되는 보다 과정적이고 역동적인 정보를 제시해 줌으로써 대학생들의 대인애착 형성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상담자들은 대학생들의 건강한 대인애착 형성을 위한 치료적 중재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Baron과 Kenny(1986)는 매개변인이 환경적 개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확인된다면 초기 부모와의 유대가 안정적이지 않았던 대학생들을 상담하는데 있어 지각된 사회적 지

지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애착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으로 연관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실제로 제공받은 지지보다 개인에게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Wethington과 Kessler(1986)는 실제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보다 개인에게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적응을 예언하는데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Heller와 Swindle(1983)는 외부에서 지지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지로 지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제공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와 지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내담자의 지각과 능력을 사정하여, 그들이 사회적 지지 체계를 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애착 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윤소연, 1993).

한편 성별은 애착 연구에 있어 흥미로운 변인이라 할 수 있다. Gilligan(1982)과 Josselson(1988)은 그들의 문헌에서 남성과 여성은 관계와 독립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성별에 따른 애착의 차이가 존재함을 암시하였다. Ainsworth(1991)는 전 인생을 통해 애착 행동이 어떻게 발달하고 애정적 결속을 포함한 대인관계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신생아기에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으나, 이후 여성들은 지지와 보호에 있어 보다 애착 대상에게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유은희(1991)는 성인자녀와 부모의 정서적 유대감을 연구하였는데, 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김소라(2003)는 대학생 대상으로 부모애착과 지각

된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남자 대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 대학생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부모에 대한 애착은 대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성차를 성별에 따른 성역할 사회화 과정과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차이로 해석하고 있다(진수경, 1995). 결국 애착 연구에 있어서 성차는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부·모유대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대인애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유대가 대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부·모유대로부터 대인애착에 이르게 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그들의 건강한 애착 발달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위해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부·모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성별에 따라 부모유대(어머니 돌봄, 어머니 과보호, 아버지 돌봄, 아버지 과보호),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인애착(의존, 불안, 친밀)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 성별에 따라 부모유대(어머니 돌봄, 어머니 과보호, 아버지 돌봄, 아버지 과보호)와 대인애착(의존, 불안, 친밀)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교직 및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전체 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중 설문에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거나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15명을 제외한 총 33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남학생은 165명(50%), 여학생은 165명(50%)이었다. 평균연령은 21.13세(표준편차 2.49)이며, 학년은 1학년은 115명(34.8%), 2학년은 108명(32.7%), 3학년은 71명(21.5%), 4학년은 36명(10.9%) 이었다.

### 측정 도구

#### 부모유대 질문지(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Parker, Tupling, 그리고 Brown(1979)이 개발하고 Gamsa(1987)에 의해 수정된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를 송지영(199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16세 이전까지의 어머니,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각각 25문항씩 총 50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25문항은 12문항의 돌봄 척도와 13문항의 과보호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돌봄 차원은 일반적 수준의 온화함과 애정, 그리고 이와는 대조되는 무관심과 무시와 관련된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과보호 차원은 부모의 통제, 간섭, 과잉보호, 그리고 이와는 대조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격려하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통제적이고 침입적이며 과보호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돌봄 수준이 높고 과보호 수준이 낮을수록 적절한 유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돌봄, 어머니 과보호, 아버지 돌봄, 아버지 과보호 하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각각 .84, .85, .90, .85이었다.

#### 지각된 사회적 지지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 지지 평가 질문지(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ISEL)'를 근거로 하여 김정희와 이장호(1986)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수정, 번안한 것을 윤소연(1993)이 재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8문항의 4점 척도인 이 검사는 각 12문항의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소속감 지지, 자존감 지지의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적 지지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재원을 얼마나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으며, 평가적 지지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같이 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줄 사람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 또한 소속감 지지는 자신과 함께 무엇인가 같이 할 사람이 있는가를 묻고 있으며, 자존감 지지는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긍정적 평가를 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93이었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하위척도인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소속감 지지, 자존감 지지의 신뢰도 계

수(Cronbach  $\alpha$ )는 각각 .86, .87, .74, .77 이었다.

## 결 과

### 성인 애착 질문지(Adult Attachment Scale: AAS)

Collins와 Read(1990)가 개발하고 박은경(1993)이 재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의 5점 척도이며, 각 6문항의 의존, 불안, 친밀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존은 중요한 타인이 의존 가능하고 필요할 때마다 옆에 있다고 느끼는지를 묻고 있으며, 불안은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려지는 것에 대해 두려운 정도를 묻고 있으며, 친밀은 중요한 타인에게 쉽게 접근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지를 측정하고 있다. 세 가지 하위 차원의 점수 중 의존과 친밀 차원의 점수가 높고 불안 차원의 점수가 낮으면 안정 애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Collins & Read, 1990). AAS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의존, 친밀, 불안 차원에서 각각 .75, .69, .72였다(Collins & Read, 1990).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의존, 친밀, 불안 차원에서 각각 .71, .60, .72 이었다.

부모유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인애착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유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대인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을 나누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 집단에서의 변인간 상관관계는 표 1에, 여학생 집단의 변인간 상관관계는 표 2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부모유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간에는 남학생 집단에서 어머니 돌봄, 아버지 돌봄, 아버지 과보호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어머니 돌봄과 아버지 돌봄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유대와 대인애착 간에는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 부모의 돌봄(어머니 돌봄, 아버지 돌봄)이 의존과 친밀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불안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남학생 집단에서는 어

표 1. 남학생의 부모유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인애착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어머니 돌봄	1							
2. 어머니 과보호	-.446***	1						
3. 아버지 돌봄	.411***	-.143	1					
4. 아버지 과보호	-.223**	.433***	-.498***	1				
5. 지각된 사회적 지지	.352***	-.158	.225**	-.176*	1			
6. 의존	.244**	-.137	.215***	-.042	.593***	1		
7. 불안	-.256**	.217**	-.184*	.150	-.496***	-.480***	1	
8. 친밀	.188*	-.046	.310***	-.112	.471***	.492***	-.349***	1

\*  $p < .05$ , \*\*  $p < .01$ , \*\*\*  $p < .001$

표 2. 여학생의 부모유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인애착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어머니 돌봄	1							
2. 어머니 과보호	-.231**	1						
3. 아버지 돌봄	.277***	-.046	1					
4. 아버지 과보호	-.115	.448***	-.330***	1				
5. 지각된 사회적 지지	.400***	-.157	.222***	-.092	1			
6. 의존	.314***	.034	.229**	.059	.522***	1		
7. 불안	-.312***	.146	-.187*	.225**	-.476***	-.448***	1	
8. 친밀	.208**	-.026	.168*	-.029	.501***	.538***	-.436***	1

\* p<.05 \*\* p<.01 \*\*\* p<.001

머니의 과보호가 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 집단에서는 아버지의 과보호가 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인애착의 세 가지 하위영역 간에는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성별로 부모유대가 대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인의 효과검증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식을 따라 검증하였다. 매개변인 효과검증은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 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두 번째 회귀식보다 세 번째 회귀식에서 감소되어야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절차에 따라 남학생 집단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부모유대(어머니 돌봄, 어머니 과보호, 아버지 돌봄, 아버지 과보호)와 대인애착(의존, 친밀, 불안) 간에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부모유대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은데, 어머니 돌봄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 $\beta=.333$ ,  $p<.01$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유대가 대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은데, 1단계에서 아버지 돌봄은 의존( $\beta=.206$ ,  $p<.05$ )과 친밀( $\beta=.291$ ,  $p<.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부모유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함께 투입하여 가정된 매개변인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통제되었을 때, 아버지 돌봄이 친밀에 미

표 3. 남학생의 부모 유대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예언변인	표준화 계수( $\beta$ )	R <sup>2</sup> (adj-R <sup>2</sup> )	$\Delta F$
지각된 사회적 지지	어머니 돌봄	.333**	.144(.119)	5.880***
	어머니 과보호	.027		
	아버지 돌봄	.044		
	아버지 과보호	-.095		

\* p<.05 \*\* p<.01 \*\*\* p<.001

표 4. 남학생의 부모 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Step	예언변인	표준화 계수( $\beta$ )	R <sup>2</sup> (adj-R <sup>2</sup> )	$\Delta F$
의존	1	어머니 돌봄	.141	.084(.059)	3.369*
		어머니 과보호	-.090		
		아버지 돌봄	.206*		
		아버지 과보호	.137		
	2	어머니 돌봄	-.013	.368(.345)	15.932***
		어머니 과보호	-.070		
		아버지 돌봄	.144		
		아버지 과보호	.172		
불안	1	사회적 지지	.579***	.108(.084)	4.417**
		어머니 돌봄	-.140		
		어머니 과보호	.186		
		아버지 돌봄	-.074		
	2	아버지 과보호	.031	.292(.266)	11.232***
		어머니 돌봄	-.006		
		어머니 과보호	.230*		
		아버지 돌봄	-.020		
친밀	1	아버지 과보호	-.058	.094(.069)	3.785**
		사회적 지지	-.463***		
		어머니 돌봄	.045		
		어머니 과보호	-.024		
	2	아버지 돌봄	.291**	.275(.248)	10.309***
		아버지 과보호	.026		
		어머니 돌봄	-.140		
		어머니 과보호	-.068		
		아버지 돌봄	.266**		
		아버지 과보호	.086		
		사회적 지지	.473***		

\* p<.05 \*\* p<.01 \*\*\* p<.001

치는 영향은 유의미( $\beta=.266, p<.01$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과보호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 $\beta=.230, p<.05$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남자 대학생 집단에서는 부모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부모유대가 대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한다고 볼 수 없었다.

한편 여학생 집단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부모유대(어머니 돌봄, 어머니 과보호, 아버지 돌봄, 아버지 과보호)와 대인애착(의존, 친밀, 불안) 간에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부모유대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은데, 어머니 돌봄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 $\beta=.334, p<.001$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유대가 대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은데, 1단계에서 어머니 돌봄은 의존( $\beta=.282, p<.01$ )과 불안( $\beta=-.263, p<.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 돌봄은 의존( $\beta=.187, p<.05$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단계에서는 부모유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함께 투입하여 가정된 매개변인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통제되었을 때, 어머니 돌봄이 의존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아버지 돌봄이 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여자 대학생 집단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돌봄이 의존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만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부모유대와 대인애착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유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대인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 부모의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유대 혹은 애착과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를 밝힌 여러 연구들(Herzberg et al., 1999; Larose, 1993; Sarason et al., 1986)과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만 아버지의 과보호 수

표 5. 여학생의 부모 유대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예언변인	표준화 계수( $\beta$ )	R <sup>2</sup> (adj-R <sup>2</sup> )	$\Delta F$
지각된 사회적 지지	어머니 돌봄	.334***	.161(.138)	6.990***
	어머니 과보호	-.075		
	아버지 돌봄	.112		
	아버지 과보호	.012		

\* p<.05 \*\* p<.01 \*\*\* p<.001

표 6. 여학생의 부모 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Step	예언변인	표준화 계수( $\beta$ )	R <sup>2</sup> (adj-R <sup>2</sup> )	$\Delta F$
의존	1	어머니 돌봄	.282**	.139(.116)	6.024***
		어머니 과보호	.041		
		아버지 돌봄	.187*		
		아버지 과보호	.160		
	2	어머니 돌봄	.116	.317(.293)	13.373***
		어머니 과보호	.070		
		아버지 돌봄	.112		
		아버지 과보호	.147		
		사회적 지지	.480***		
불안	1	어머니 돌봄	-.263**	.126(.103)	5.354***
		어머니 과보호	.014		
		아버지 돌봄	-.042		
		아버지 과보호	.162		
	2	어머니 돌봄	-.127	.260(.234)	10.026***
		어머니 과보호	-.007		
		아버지 돌봄	-.035		
		아버지 과보호	.147		
		사회적 지지	-.392***		
친밀	1	어머니 돌봄	.168	.044(.019)	1.733
		어머니 과보호	.000		
		아버지 돌봄	.089		
		아버지 과보호	.008		
	2	어머니 돌봄	-.002	.236(.210)	8.959***
		어머니 과보호	.028		
		아버지 돌봄	.019		
		아버지 과보호	-.014		
		사회적 지지	.484***		

\* p<.05 \*\* p<.01 \*\*\* p<.001

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laherty와 Richman(1986)은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모로부터 높은 돌봄과 낮은 과보호를 받는다고 성인기의 지지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능력은 아동기에 경험하는 부모의 애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부모의 돌봄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었으나, 부모의 과보호와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과 비교하여 관계 중심적인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대학생들은 관계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과보호를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남학생들은 관계지향적인 여학생들에 비해 심리적 독립심과 자기주장성의 욕구가 강하므로, 아버지의 통제적인 과보호가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있어 더욱 분명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라 해석된다.

부모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서도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을 많이 받았다고 느낄수록 친밀한 타인에게 의존하며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또한 낮은 불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의존과 친밀 차원의 점수와 낮은 불안 차원의 점수는 안정 애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정 애착이 부모의 돌봄과 관련성이 높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모의 돌봄 차원은 Bowlby(1988)가 언급한 안정 애착형성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라고 말할 수 있는 어머니의 돌봄뿐 아니라 아버지의 돌봄도 대학생들의 안정 애착과 관련성이 높은 중요한 요소임이 입증되었다.

이 밖에 대인애착 중 불안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성부모의 과보호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Joireman 등(2001)의 연구결과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낭만적인 관계에서의 불안은 조망수용능력 및 공감적인 관심과 부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부모로부터 사생활을 침입 받고 지나친 과잉통제를 받아온 청소년들은 자기 가치감을 발달시키기 어려우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학습할 수 없으므로, 타인이 떠나는데 대한 불안감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이성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은 Hoffman과 Weiss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그들은 이성부모와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사회적 적응과 개인적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진수경, 1995). 이처럼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고 이성과의 친밀감이 발달되는 시기로서, 이성부모와의 관계가 그들의 애착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대인애착의 세 가지 하위영역간의 관계에서는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애착유형 및 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김수진, 2000; 김주연, 2001; 황옥경, 2002; Vaux, 1993)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의 부·모유대, 지각

된 사회적 지지 및 대인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대체적으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성별에 따라 부모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남학생 집단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돌봄이 의존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 돌봄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버지 돌봄은 대인애착의 하위 요소 중 의존과 친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는 있었으나 부모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어머니 돌봄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의존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선 어머니의 돌봄이 속성상 아버지의 돌봄과 다르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아버지의 돌봄보다는 어머니의 돌봄에 영향을 받아 발달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어머니의 돌봄과 아버지의 돌봄에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들을 통해 그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Parke(1996a)는 아이들이 놀이에 참여할 때 어머니는 아이들로 하여금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욱 참여하도록 하여 타인에게 감정입을 하고 관여하며 사회화 기술이 향상되도록 하였고, 아버지는 아이들이 놀이에 참여할 때 기꺼이 위협을 무릅쓰고 참여하도록 허용하여 아이들이 지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그 후 Parke와 그의 동료들(2004)은 그들의 연구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어린이들의 우정, 동료들로부터의 인기도, 고민에 쌓여 있을 때 정서조절, 그리고 자기 존중감과 더욱 관련이 되는 반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갈등 해결과 동료와의 관계에서의 사회적 유능성과 더 관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chultheiss와 Blustein(1994)은 어머니와의 애착은 아버지와의 애착에 비해 정서적 안정을 예측한다고 하였고, Richman과 Flaherty(1987)는 아버지와의 유대는 어머니와의 유대에 비해 자기 존중감과 관련이 된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의 돌봄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로 하여금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성을 발달시키도록 하고, 아버지의 돌봄은 자녀로 하여금 문제해결 및 환경에의 탐색을 제공해줌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한 자기개념과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반응적이고 도움을 주며 돌봄을 제공하는 어머니의 돌봄은 한 개인이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이와 함께 자신은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지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내적 작동 모델은 개인의 지지에 대한 기대, 즉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남녀 대학생의 매개효과에 있어서의 차이는 사회적 지지를 이용함에 있어 남녀의 견해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Stokes와 Wilson은 남성은 전형적으로 독립적이 되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타인에게 의존하고 다양한 지지체계를 활용하는 것을 피하게 되는 반면, 여성은 상호의존적이고 정서적으로 표현하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남성보다 더 많이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Amanda & Deborah, 2006). 따라서 여학생들의 애착 발달

은 타인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지므로 어머니의 돌봄을 바탕으로 형성된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의존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지만, 남학생들의 애착 발달은 개인으로서의 독립성과 자기개념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대인애착은 아버지의 돌봄으로부터 영향은 받지만 어머니의 돌봄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대인애착으로는 발달하지 못한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변인들은 부모와의 유대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그리고 대인애착과 같은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개인의 회고적 평정이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의 상호작용과 개인의 지각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보고와 함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부모의 보고 및 주요 지지자원 혹은 현재 애착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인의 보고가 연구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애착이란 문화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변인으로서, 관계중심적인 우리나라 문화에서 건강한 개인의 발달과 애착의 양상은 서구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관계 중심의 문화와 급속도로 변해가는 개인 중심의 문화의 혼재로 인해, 개인의 행복, 가족의 개념과 형태, 친밀한 관계의 의미는 변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해가는 한국적 문화에 맞는 건강한 애착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애착은 자기개념의 발달과 타인과의

관계 발달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자기개념의 발달과 타인과의 관계 발달은 서로 상호작용 속에서 상보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관계적 변인과 함께 개인 내 변인을 함께 포함시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 개인의 발달은 평생 동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부·모 유대가 대인애착을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발달단계에 해당하는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남성과 여성의 주요 애착 대상과 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령대에 따른 종단적 연구는 개인의 건강한 발달의 지침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서울대학생연구, 30, 38-63.
- 김소라 (2003). 부모애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수진 (2000). 애착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대처 유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김주연 (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수준 및 이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박은경 (1993). 애착유형이 자존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5), 979-991.
- 유은희 (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윤소연 (1993). 자신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형득 (1997). 인간관계 훈련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진수경 (1995). 애착, 심리적 독립성 및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황옥경 (2002). 내담자의 애착유형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작업동맹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Ainsworth, M. D., Blehar, M.C., & Waters, E.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_\_\_\_\_ (1991). Attachment and other affectional bonds across the life cycle. In J. Stevenson-Hinde and P. Marris(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pp.33-51). NY: Routledge.
- Amanda, C. W., & Deborah, M. F. (2006). Effect of sex on perceived support and burnout in university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40(2), 237-25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lsky, J., & Cassidy, J. (1994). Attachment: Theory and evidence. In M. Rutter & D. Hay (Ed.), *Development through life* (pp. 373-402). Oxford: Blackwell.
- Berscheid, E. (1994). The Relationship Closeness Inventory: Accessing the closenes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92-807.
- Bowlby, J. (1958).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_\_\_\_\_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 \_\_\_\_\_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Y: Basic Books.
- \_\_\_\_\_ (1988). *A secure base*. NY: Basic Book
- Bowen, M. (1986).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Y: Aronson.
- Carary, D., Cupach, W., & Messman, S. (1995). *Relationship Conflict*. London: Sage.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4), 644-663.

- Derlega, V. J., Hendric, S. S., Winstead, B. A., & Berg, J. H. (1991). *Psychotherapy as a relationship*. NY: The Guilford Press.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Flaherty, J. A., & Richman, J. A. (1986). Effects of childhood relationships on the adult's capacity to form suppor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851-855.
- Fong, G. T., & Markus, H. (1982). Self Schemas and judgements about others. *Social Cognition*, 1, 191-204.
- Gamsa, A. (1987). A not on a modification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121, 241-258.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eenson, R. R. (1965). The working alliance and the transference neuroses. *Psychoanalysis Quarterly*, 34, 155-181.
- Heller, K., & Swindle, R. W. (1983). Social network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with stress. In R. D. Felner, L. A. Jason, J. N. Moritsugu & S. S. Faber (Eds.), *Preventive Psychology Therapy research and practice* (pp. 87-103), NY: Pergamon Press.
- Herzberg, D. S., Hammen, C. B., Dorli, D., & Shannon, E. (1999). Attachment cognitions predict perceived and enacted social support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4(4), 387-404.
- Joireman, J. A., Needham, T. L., & Cummings, A. (2001). Relationship between dimensions of attachment and empathy.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3, 63-80.
- Josselson, R. (1988). The embedded self: I and though revisited. In D. K. Lapsley & S. M. Quintana (Ed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pp. 91-108), NY: Springer.
- Kerns, K. A., & Stevens, A. C. (1996). Parent-child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Links to social relations and persona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323-343.
- Larose, S. (1993). *Parent-Adolescence Attachment and Specificity of Perceived Social Support*. Quebec, Canada.
- Lui, Y. L. (2006). Paternal/maternal attachment, peer support, social expectations of peer inter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dolescence*, 41, 705-722.
- Main, M., Kaplan, K.,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Bretherton, I., & Waters, E.(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66-104.
- Mallinckrodt, B. (1991). Clients' representations of childhood emotional bonds with parents, social support, and form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33-138.
- Marcia, J.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c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159-187). NY: Wiley.
- Martin, G. & Waite, S. (1994). Parental bonding and vulnerability to Adolescent suicide. *Acta*

- Psychiatrica Scandinavica*, 89, 246-254.
- Matsuoka, N., Uji, M., Hiramira, H., Chen, Z., Shikai, N., Kishida, Y., & Kitamura, T.(2006). Adolescents' attachment style and early experiences: a gender difference. *Arch Women's Mental Health*, 9, 23-29.
- Parke, R. D. (1996a). *Fatherhoo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e, R. D., Dennis, J., Flyr, M. L., Morris, K. L., Killian, C., Mcdowell, D. J., & Wild, M. (2004). Fathering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pp. 307-340). NY: Wiley.
- Parker, G. (1979a).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134, 138-147.
- \_\_\_\_\_ (1979b).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cs and social phobic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35, 559-560.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Parker, G., Barrett, B., & Hickie, I. (1992). From nature to network: Examing links between perception of parenting received in childhood and social bonds in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 877-880.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579-600.
- Re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 382-385.
- Richman, J. A., & Flaherty, J. A. (1987). Adult psychosocial assets and depressive mood over time: Effects of internalized childhood attachment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5, 703-712.
- Sarason, I. G., Levin, H. M., Basham, T. B., & Sarason, B. R.(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7-139.
- Sarason, I. G., Sarason, B. R., & Shearin, E. N.(1986). Social support as an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 Its stability, origins, and relational a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845-855.
- Sarason, B. R., Pierce, G. R., & Sarason, I. G.(1990). Social support: The sense of acceptance and the role of relationships, In Sarason, B. R., Sarason, I. G., & Pierce, G. R.(Eds.) *Social support: an interactional view*. NY: John Wilson & Sons.
- Schultheiss, D. E. P., & Blustein, D. L. (1994). Role of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in college student develop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48-255.
- Sroufe, L. A. (1988). The role of infant-caregiver attachment in development. In J. Belsky & T.Nezworski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18-38). Hillsdale, NJ: Erlbaum.
- Vaux, A. (1993). Social Support Network Orientation: The Role of Attachment Styl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2, 354-365.

Wethington, E., & Kessler, R. C. (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78-88.

원 고 접 수 일 : 2007. 9. 3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 21

게 재 결 정 일 : 2008. 2. 1

##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onding and Interpersonal Attachment**

**Si-Eun Lee**

**Jae Chang Lee**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etter understand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onding and interpersonal attachment. Three hundred and thirty college stud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parental bonding,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attachment in both the male and female groups. Second, perceived social support fu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maternal care and sub-scales of interpersonal attachment(dependance and anxiety) only in the female group. These findings help us to understand diverse path from parental bonding to interpersonal attachment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parental bonding, perceived social support, interpersonal attachment.*